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1999년의 대재앙은 다가오는가!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어디쯤 와 있으며, 어느 선에서 회귀할 것인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상화될 것인가? 아니 한국경제의 정상화는 가능한 것인가?

재벌순위 8위의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마당에 몇개의 재벌그룹이 더 쓰러질 것인가? 한보에 이어 삼미, 진로, 대농그룹이 연이어 쓰러지고 국민총생산(GNP)의 3%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아그룹마저 쓰러지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을 볼 때, 암울하기 짝이 없음을 국민 누구나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몇몇 재벌그룹이 쓰러졌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일시에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제조기업 및 국민일반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일순간의 과정정도로 여기고 있느냐의 상황판단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대도시의 고급음식점은 아직도 불야성을 이루고 「먹고 놀자판」한국문화는 날 썰줄을 모르며, 회사의 경비절감책은 판공비 및 회식비는 그대로인 채 영업과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회사의 장래를 설계하는 기본도구인 홍보·광고비 및 서적구입비를 줄이는 웃지못할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뿐인가, 7월말이 다가오면서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되고 출퇴근 지하철이 한가해지고 있으며, 대신 고속도로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어지고, 나라경제의 먹구름에 아랑곳하지 않는 해외여행바람은 고개를 숙일줄 모르고 있다.

일본경제가 엔고를 바탕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각종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불과 몇년만에 제기에 성공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원자재는 하나같이 수입해 사용하고, 기초기술의 낙후는 물론이고 응용기술마저 개도국에 추월당하는 판에 유일한 경쟁무기인 인적자원마저 병들대로 병들어 있으니 무엇을 믿고 장래를 논의하겠는가 말이다.

그래도 재벌들의 경제동물적 본성은 끝이 보이지 않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은 별무신통이다. 오죽했으면, 중소기업도 아닌 재벌들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부가세 20%를 면제해주겠다는 웃지못할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직전에 놓여 있겠는가.

한보·삼미의 부도사태에 이은 진로·대농·기아 등에 대한 「대기업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은행들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97년4월 발효된 대기업부도유예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들이 상환을 유예시킨 부실채무 아니 국민부담은 진로 1조2022억원, 대농 6027억원, 기아 5조3845억원 등 7조1894억원으로 은행감독원이 공식 집계한 96년말 현재의 은행 부실여신총액 2조4000억원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3개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은행들은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이자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한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판단아래 불합리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재벌을 살려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결론은 시장경제원칙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재벌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더이상 국민일반을 담보로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50대 아니 100대를 놓고 보아도 개개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본격적인 국제경쟁의 틀이 운용되는 98년 이후에는 부동산 거품마저 해소될 것이 확실, 적어도 20~30%는 부도사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부도유예조치가 한계점에 다다를 때 그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기아가 소유분산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도문 전문화 그룹이라는 점일 뿐이다.

「재벌부도유예협약」을 당장 폐지하는 것만이 1999년의 대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화학저널 1997/7/28>